

벤처업계 “규제개혁 컨트롤타워 국조실·중기부로 집중을”

벤처기업협, ‘총선 공약’ 발표
규제샌드박스 제도 정비
차등의결권 도입 등 제시

벤처업계가 규제개혁 컨트롤타워를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로 집중 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많은 규제기관이 존재하고 기관마다 개혁 의지도 제각각이어서 두 부처가 정부를 대표해 규제개혁을 조정하고 타 부처와 적극적인 협의 주제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벤처기업들이 경영권 위협을 받지 않고 원활한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차등의결권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지방자치단체 등 제도 전 관련 36개 기관의 유사중복 지원사업도 효과적으로 정비해 현상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미래세대를 위해 기업가정신 교육 대상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벤처기업협회는 6일 서울 여의도 컨싱턴호텔에서 혁신벤처생태계 정기포럼을 열고 ‘벤처분야 2020 총선공약 제



벤처기업협회는 6일 서울 여의도 컨싱턴호텔에서 ‘벤처분야 2020 총선공약 제안’을 발표했다. 관련 토론에서 (왼쪽부터)베이글랩스 박수홍 대표, 한정화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안건준 벤처협회장,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정병국 새로운보수당 의원,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한기운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앉아 있다. /벤처협회

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날 자리에는 벤처업계 제안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주요 정당까지 참석,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당별 벤처 정책도 함께 밝혔다.

업계 의견을 반영,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양대 과노성 특임교수는 ▲○○○진흥법과 ○○○진흥원 과감하게 축소·폐지 ▲차량공유를 포함한 모빌리티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 ▲원격진료 및 원격조제 적극 허용 ▲규제샌드박스제도 정비 ▲데이터 3법 국회 통과에 따른 불안감과 우려 해소를 위해 신속한 하위 법령 개정 ▲화학물질 규제 관련 유럽연합(EU) 방식서 일본 방식으로 전

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 해외시장 통합정보 플랫폼 구축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적용 제품 등 공조달시장 진출 위한 패스트트랙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 교수는 “규제샌드박스가 또다른 규제를 야기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데 신청부터 실증결과까지 정보를 알 수 있는 정부 단일 사이트를 구축하고, 정부내 신속확인 회신기간과 실증특례 심사기한 등도 단축해야 한다”면서 “화학물질 규제의 경우는 기업이 감당할 만큼만 규제를 부담하도록 하고 그 이상의 안전관리는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개발(R&D) 기획 단계부터 제

품 양산, 마케팅 등 전 과정에 걸쳐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한국형 협력생태계 조성을 위한 ‘팀 코리아(Team KOREA)’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서울연구원 김선영 초빙부연구위원은 “팀 코리아 구축을 위해 세미나와 네트워킹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의 장’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R&D 기획부터 벤처기업과 대기업이 항시적으로 소통하고, 이들의 발굴과제는 패스트트랙으로 일관 지원하는 등 개방형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 지역의 기업과 대학, 지자체, 연구 및 지원기관 등이 모두 참가하는 ‘기술축제’를 개최해 지역 산업을 활성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자의 한 명으로 나선 전 중소기업청장 한정화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은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학 평가시 기술사업화, 기술이전, 일자리 창출 등을 중심으로 높은 점수를 줘 ‘기업가형 유니버시티’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면서 “기술, 사람, 자금 등 요소를 공급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젠 규제 개혁과 공공조달 제도 등을 획기적으로 바꿔 시장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이사장은 또 제도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전지

원법’ 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포럼에 참석한 여·야의원들은 각 당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벤처 관련 공약에 차이가 있지만 ▲모태펀드 예산 추가 투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 ▲벤처특화 전문은행 설립 ▲스케일업 지원 예산 확대 ▲규제샌드박스제도 보완 ▲벤처기업 확인제도 보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실리콘밸리에 IT 대사관 설치 ▲근로 환경 보장을 위해 5대 특례업종에 IT, 벤처 등 추가 ▲그린 뉴딜형 벤처기업 전략적 육성 ▲소셜벤처 기업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 등의 아이디어를 내놨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이번 정기포럼은 제 21대 총선을 앞두고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혁신벤처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여러 제안 과제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규제 개혁 가속화, 스케일업 벤처 확산, 벤처투자의 질적 성장으로 특히 규제개혁의 경우 규제 관련 모든 법률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법조문에서 ‘기타, 그밖에, 등등’과 같은 문구를 일괄 삭제해 규제가 광범위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최저임금 구분-기술탈취 제재-화관법 완화”

중기중앙회, 문희상 의장 간담회

중소 주요 입법과제 10개 건의
근로시간 단축 보완 등도 촉구
김기문 “경영 매진토록 협조 부탁”

중소기업계가 문희상 국회의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주요 입법과제 10건을 전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김기문 회장을 비롯해 서병문·서석홍 수석부회장 등 중소기업 대표 9명이 문희상 의장이 6일 국회 사랑제에서 주최한 ‘중소기업인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선 문 의장을 비롯해 이기우 의장비서실장, 이계성 정무수석, 최광필 정책수석 등 7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 등은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공동행위공정거래법 적용제외’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행정 불편 해소를 위해 소



(왼쪽 다섯번째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중기중앙회 부회장이 6일 국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기업소상공인공제인 ‘노란우산의 국제청 과세정보 활용’이 가능토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에 힘써 준 20대 국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관련 10개 입법 주요 과제도 건의했다.

여기에는 ▲납품대금 조정제도 활성화 및 기술탈취 행위 제재강화(하도급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법 일부개정안)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

위 인정(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최저임금 업종·규모 구분 적용(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 ▲근로시간 단축 보완 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등의 내용이 두루 포함돼 있다.

또 서면으로는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 완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소기업의 화

학물질관리법 이행을 위한 방안 마련(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 ▲유통상가 단지 육성 및 지원방안 마련(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온라인 시장 공정거래 기반 조성(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주휴수당 노사 자율화(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등도 함께 건의했다.

김기문 회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내수부진 장기화 등의 여파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체감경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여야가 민생경제 해결을 위해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한 것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며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보완과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뿐만 아니라 기술탈취행위 제재를 강화한 상생법 개정안도 통과돼 중소기업들이 희망을 갖고 경영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한샘 온라인 ‘한샘물’ ‘샘키즈 수납장’ 인증 경품

한샘은 자사 온라인몰 한샘몰에서 ‘샘키즈 수납장’ 100만 세트 판매 돌파를 기념해 오는 29일까지 사용중인 ‘샘키즈 수납장’을 인증하는 고객 1000명에게 신규 색상의 솜사탕, 그리너리 ‘샘키즈 서랍 박스 6p’를 증정한다고 6일 밝혔다. 또 ‘샘키즈 수납장’을 새로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아이너바움 향균 토이 클리너’를 선착순 1000명에게 준다.

참여방법은 현재 사용중인 ‘샘키즈 수납장’을 촬영하고 인스타그램에 #한샘, #한샘물, #샘키즈, #샘키즈새로고침, #샘키즈뉴컬러, #국민수납장, #육아템, #육아스타그램의 필수 해시태그를 업로드한 뒤 한샘몰의 해당 이벤트 페이지에 안내된 링크로 접속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템퍼코리아 봄 웨딩시즌 프로모션

템퍼코리아는 다가오는 봄 웨딩시즌을 맞아 이달 23일까지 ‘템퍼 웨딩 페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전국 템퍼 공식 판매점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모션은 행사기간 동안 매트리스 구매 고객에게 템퍼 오리지널 베개를 증정한다. 또 세트(매트리스+프레임+매트리스+모션베드) 구매 고객에게는 템퍼 매트리스 커버를 무료로 증정한다.

템퍼 매트리스는 견고한 느낌과 우수한 지지력을 두루 갖춘 오리지널과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의 매트리스인 클라우드, 센세이션 등 3가지 제품군으로 구성돼 있다. /김승호 기자

이노비즈協, 印尼 車부품시장 진출 물꼬

미래선도 기술 협력 컨퍼런스 열어

이노비즈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난 5일 서울 역삼동 삼정호텔에서 한·인도네시아 자동차 부품 미래선도기술 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협회는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 함께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진출을 위해 ‘한-인니 자동차 부품 미래혁신 기술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협회는 지난해 12월 관련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가를 인도네시아에 파견, 현지 자동차 부품사를 발굴·진단한 바 있다.

이날 열린 컨퍼런스에는 인도네시아 산업부와 중소기업부내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상공회의소(KADIN), 경영자총연합회(APINDO), 중소기업자부품제조기업협회(PIKKO) 관계자도 함께 참석해 인도네시아 진출 시 필요한 투자, 시장 동향, 정부지원 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제시했다.

아울러 행사에 참가한 국내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정부 및 협·단체 관계자와

의 1대1 상담을 통해 현지 시장진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도 표명했다.

조흥래 이노비즈협회장은 “수십 년 전부터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일본은 전체 자동차 시장의 95%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의 첨단 기술기반의 혁신적 자동차부품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